

### 6월의 기도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2장 12절-13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조용기 총재목사님께서 2013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3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순복음시흥교회, 순복음성동교회, 순복음김포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숙 김양호 김정환 나인규 안희순 오현주 이규현 이형춘 임철규 정경자 정낙숙 최인철 한태성 함석숙 Esther Han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 “이유 없는 고난”

김경순 자매님과 그의 남편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여러 번 전도를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잘 살고 있고 부부간에 인정도 있고 자식들도 잘 자라니까 예수 필요 없어요”하며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길거리에서 트럭과 부딪쳐 팔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이 다 부서졌으니 인공관절을 해 놓을 도리밖에 없는데, 인공관절을 해 놓으면 팔이 안 자라기 때문에 몽당팔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넉 달을 입원해서 치료했으나 팔은 점점 굳어지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 자매님이 너무 답답해서 병원 구석에 앉아 “하나님! 죄가 있으면 부모인 내게 있지 어린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어린 자식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소리를 병원 복도를 지나가던 여의도순복음교회 구역장님 한 분이 들었습니다. 구역장님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병실로 들어가 아이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고 찬물 찜질도 해주니까 쫘팍 안하던 팔의 뼈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깨어져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교회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온 구역식구들이 두 달 동안 기도한 결과, 아이의 관절이 깨끗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김경순 자매님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이가 차에 부딪쳐서 팔 관절이 부서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가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같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있는 고난도 좋고 이유 없는 고난도 좋습니다. 고난 당할 때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더 위대한 축복이 올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761-6142 / dcem@davidcho.com

## 조용기 목사 초청 호주 멜버른 ‘생명의 강 컨퍼런스’



생명의 메시지 멜버른과 오세아니아에 넘쳐 흐르다  
조용기 목사 “예수님은 생명” 영적으로 잠든 호주 깨워



1902년 성령의 사람 R.A. 토레이 신부가 호주 멜버른에서 인도한 집회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호주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게 했다. 그리고 111년이 지난 2013년 5월 DCEM조용기 총재목사 초청 ‘생명의 강 컨퍼런스(River of Life Conference)’가 멜버른 교회를 다시 하나가 되게 했고 이곳이 성령의 도시가 될 것을 기대하게 했다.

이번 성회는 비행기 조종사 출신인 피터 켈틀리(중보기도팀 리더·부대회장)의 중보기도 모임으로 시작됐다. 작은 모임에서 조용기 목사의 초청이 이뤄지자 갈수록 많은 지역교회의 참여가 이어졌다. 그리고 멜버른교회연합이라는 단체가 이뤄졌고, 교계 지도자들은 멜버른에 생명의 강이 넘쳐 성령의 도시가 될 것을 기대했다. 이번 성회의 티켓은 올해 초 모두 매진됐다. 이렇게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은 조용기 총재목사 초청 ‘생명의 강 컨퍼런스’가 5월 9~10일 호주 빅토리아주 중심도시 멜버른의 컨벤션센터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멜버른 교회연합이 주최하고 DCEM이 후원

한 이번 컨퍼런스는 오세아니아지역 교회 목회자를 비롯해 시드니순복음교회 정우성 목사 와 멜본순복음교회 박종환 목사 등 오세아니아 선교사들 현지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또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회장 김윤배 장로와 임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대형 행사장을 발디딜 틈 없이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조용기 목사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박수와 ‘아멘’으로 응답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뜨거운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5월 9일 저녁 조용기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을 전했다. 성경의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한 뒤 자신의 체험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간증했다. 이어 교회 부흥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인간이 갖는 죽음과 가난,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제한 뒤 “불가능한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지라도 말씀에 기초해 소망과

믿음을 갖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조용기 목사는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믿음이란 계란으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부서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설명한 조용기 목사는 자신이 앓았던 파킨슨 병에 대해 간증했다. 조용기 목사는 “의사들은 모두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낫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치료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환경과 싸워야 하고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꿈꾸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는 신유기도를 한 후 기적을 선포했다. “오늘 목이 매우 아픈 사람이 고침 받았습니다. 누구신가요? 일어나보세요”라고 조용기 목사가 말하자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며 치유된 것을 간증했다. 간증은 생명의 강처럼 계속 이어졌다.

# 깨어진 사람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물건이나 그것은 깨어지면 못쓰게 되지 만 사람은 오히려 깨어지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지지 않아 자기중심적이고 못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근심과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재앙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아도 스스로 깨어지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못되고 강한 지도자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세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 스탈린 그리고 도조 히데키 같이 깨어지지 않은 지도자들이 우리 인류에게 끼친 화(禍)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나타내고 큰일을 이룬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한 걸 같이 험하고 힘든 길을 걸어 깨어지고,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 후에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 1.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어진 사람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고 복을 준 사람은 삶을 통해 고난과 시련으로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바로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40세 때 민족의식이 투철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것이 들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미디안의 족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0살의 젊은 나이에 광야에 들어온 그가 40년 동안 머슴살이로 세월이 흘러갔으니 이제는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릿도 백발이 되고 몸도 허리가 굽어지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찾아 오셔서 불 붙는 가시뿔에서 말씀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40년 동안의 시련을 통해 깨어져 하나님께

온전히 앞드러지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은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깨뜨려 낮추시는 광야와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큰 시련 뒤에는 큰 복이 있고 작은 시련 뒤에는 작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당하면서 내내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그 받은 복도 결국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 2. 깨어진 사람과 안 깨어진 사람

그렇다면 깨어진 사람과 안 깨어진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을 보면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먼저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랑하는데 깨어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할 때 자꾸 스스로 자기 자랑을 말하거나 큰 일 날 사람인 줄 알고 빨리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사람은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그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말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깨어진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고 서로 칭찬을 주고 받으니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안 깨어진 사람은 범사에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고 부정적입니다. 깨어진 사람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진실하며 겸손합니다. 깨어진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 깨어진 사람은 율법주의자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허물을 벗깁니다. 무엇이든지 남을 탓하고 남을 욕하고 자기만 잘나고 옳은 사람입니다. 이렇듯 이웃과 주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안 깨어진 사람입니다.

### 3. 사람을 깨뜨리는 시련과 고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DNA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수양과 도덕을 통해서도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온전히 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인생에 심한 내적 고난을 겪어 깨어져야 가능합니다. 선악과를 따 먹고 하나님과 동등 됨을 꿈꾸었던 인간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엎드려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어진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먼저 사람은 깨어져야만 악인의 꾀를 버리고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온유하며 순종하고 겸손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깨어진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밤과 낮이 번갈아 하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과 시련이 번갈아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시련이 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시련을 통해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면 우리는 깨어진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괴로움을 이기기 위한 제일 좋은 길은 감사입니다. 무슨 일든지 반복해서 감사하면 주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우리를 온갖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반대로 고난과 시련에 대해 우리 스스로 분노하고 진노하면 더 큰 시험이 다가오고 더욱 괴로워집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고 곧장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하고 반복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 여의도순복음시흥교회 금요철야예배 통해 ‘DCEM’ 헌신예배 드려

## 기도로써 영적인 갈급함과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자

가정의 달인 5월에 DCEM 헌신예배가 시흥시 장왕동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시흥교회(담임 권경환 목사)에서 열렸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는 지난 5월 3일 여의도순복음시흥교회 금요철야예배에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였다. 이날 시가끼 장로는 작년 11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렸던 DCEM 조용기 총재목사 성회의 생생했던 영상을 순복음시흥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청한 후 그 때의 간증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가끼 장로는 연 인원 100만 명이 참석했던 인도 하이데라바드 성회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성회현장의 감동을 전달하며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그들의

간절함을 역설하였다. 인도 사람들은 귀한 사람을 만지면 자신도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집회가 끝난 후에도 많은 인파들이 조용기 목사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몰려와 성회장소를 빠져나갈 수 없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신앙의 갈급함과 뜨거움이 자신에게 남아있는지 점검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였다.

시가끼 장로는 우리의 뜻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인도자 되시며 항해사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전하고 이를 위해 성령충만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



는가를 귀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것을 강조한 그는 말씀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을 부른 후, DCEM 조용기 총

재목사의 해외선교사역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DCEM 헌신예배가 열렸던 여의도순복음시흥교회의 전성도는 153비전(1만명의 성도, 5000평의 대지, 3000석의 새성전) 선포를 하고 시흥지역 복음화의 초석을 다져 나가고 있다.

# 여의도순복음성동교회 금요철야예배 통해 ‘DCEM’ 헌신예배 드려

## 조용기 목사 해외 선교를 위해 한 마음으로 드려진 뜨거운 기도회



지난 5월 17일 DCEM 헌신예배가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성동교회(담임 박의섭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는 시편 23편 1절~6절의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시가끼 장로는 “우리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를 분

명히 정해야 하며, 목적지를 정확더라도 지도를 갖고 있어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 제대로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조용기 총재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인생의 4가지 내비게이션’에 대해 성도들에게 전했다. 시가끼 장로는 첫째로, 긍정적

생각의 내비게이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둘째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꿈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로,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야 하고, 넷째는, 조용기 총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바라봄의 법칙’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순복음성동교회 성도들은 시가끼 장로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박장대소하며, 때로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또한 성도들은 세계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DCEM 조용기 총재 목사의 고충과 노고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설교를 마치며 시가끼 장로는 “세계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며 DCEM 조용기 총재목사의 영혼육의 강건함과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순복음성동교회는(담임 박의섭 목사)는 다양한 방법의 구제사역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다. 교회 카페 ‘커피니’의 수익금은 구제 현금과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장학 사업을 더 활발하게 펼치기 위하여 ‘꿈나무 장학회’를 설립, 차세대 교회학교 장학사업에 매진할 예정이다. 또한 3040선교회는 3월부터 반찬구제사역을 실시해, 격주로 다양한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서 교회 내 어려운 가정들에게 배달해주며 섬기고 있다.